

# 서울시 역사공원의 현황 고찰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고영권\*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Current Status of Historical Park in Seoul

Ko, Young-Kwon\*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In this study, six historical parks in Seoul i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the representative values of the historical parks in Seoul draw three criteria such as historicity, educational attributes, and sociality, and also the type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spatial functions and arrangements, circulation and accessibility, and the type and usage of introduced facilities. Consequently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cultural assets oriented historical parks such as Sayuksin · Bongeun and Seonnongdan historical Park focus on the management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Non 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oriented historic parks such as Shingye · Yanghwajin · Itaewon-bugundang historic park should focus on the usages the symbolize and commemorat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Second, Careful attitudes on the historicity of the park are needed in the mixed type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that determine the identity such as Yanghwajin · Itaewon-bugundang historic park. Third, the rate of facilities in Bongeun and Shingye historical park is increased due to the renovation of religion facilities, rather than the neighborhood parks. The autonomy of regulations that does not have the limits of the area of park facilities weaken the publicity of the historical parks. Fourth, Shingye historical park suggest changing its name into Danggogae martyrs' shrine historical park. because its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re included as the historic park is named. Fifth, the current problems such as numerous uncontrolled entrances, mixed uses in circulation, and accessible failure due to the closure are recognized. Therefore, the entrances and circulations should be articulated clearly in order to increase opportunities of experience for visitors in the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nd also neighborhood facility should be suitably divided. Sixth, the park 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parks are introduced equally in Seoul historical parks. The uses and arrangements that considered the circumstance of the historical parks should be determined in the cultural facilities such as outdoor music hall and sporting facilities. Seventh, historic facilities that named historic hall, culture hall, memorial hall, and promotion hall in the historic parks are utilized for convenience and religion facilities. Institutional framework should be examined to keep publicity in the historic parks by spatial privatization of the specific group.

*Key words: Educational Attribute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Historicity, Sociality*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공원의 가치를 대표하는 역사성, 교육성,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공간 기능 및 배치, 이용 동선 및 접근성,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hssou@uos.ac.kr

첫째, 사육신·봉은·선농단 역사공원과 같은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가 중심이 된다. 신계·양화진·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과 같은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양화진 역사공원과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은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혼재된 유형으로서 공원의 역사성에 대한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봉은 역사공원과 신계 역사공원은 근린공원이었을 때보다 종교시설의 신·증축으로 인해서 시설율이 높아졌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련 법규의 자율성이 역사공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역사공원의 명칭 부여 시 해당 역사문화자원과 관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계 역사공원은 ‘당고개순교성지 역사공원’이라고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출입구, 관람동선과 산책동선의 혼재, 폐쇄로 인한 접근성 불량 등의 문제를 인지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체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람동선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근린시설공간과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 여섯째, 서울시 역사공원에는 근린공원에서 기능하는 공원 시설이 동일하게 도입되었다. 이때, 운동시설이나 야외음악당과 같은 교양시설의 경우 역사공원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용도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일곱째, 역사공원 내 역사관, 문화관, 기념관, 홍보관이라고 명명된 역사관련시설이 원래 목적 외에 주민 편의시설과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 특정 집단의 공간 사유화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주제어: 교육성, 사회성, 역사문화자원, 역사성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역사공원은 200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주제공원 중 하나로서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전국 역사공원의 면적은 2007년에 450,000㎡였으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7,700,000㎡로서 총 169개소에 이른다[1]. 서울시에는 단일 지자체로서 가장 많은 역사공원이 지정되었다. 2006년 암사 역사공원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에 아차산 역사공원이 새로 지정되고, 경희궁, 동묘, 신계, 봉은, 석촌동고분, 방이동고분 등 기존 근린공원 6개소, 공공공지였던 양화진과 사육신 묘지공원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3년까지 찬우물길, 상산, 선농단, 이태원부군당, 서소문 역사공원이 추가되었다. 서울시 역사공원은 궁(1개소), 사당(2개소), 묘(3개소), 사찰(1개소), 순교성지(3개소), 제례장소(2개소), 유적지(2개소), 옛 물길(1개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역사공원은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설계기준」 등 크고 작은 6가지 법규의 직·간접적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공원이 생활권 공원과 달리 해당 역사문화자원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규모,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와 자율성은 한편으로

공원 시설을 증가, 부적합 시설 설치 등의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궁궐, 단묘 등 국가지정문화재급 역사자원들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밖의 근대 유산이나 생활사적 역사자원들 중 많은 곳이 체육공원, 묘지공원,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지정된 역사공원은 독자적인 정체성이 취약하며, 역사공원이 기존 근린공원과 비슷하게 조성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특색을 느끼기 어렵다[2].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공원의 문제점에 착안하고 서울시 역사공원의 물리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양상을 인지한 후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새로 조성하는 역사공원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역사공원과 관련하여 2006년 법적 역사공원이 도입되기 이전 연구로서 미국과 일본의 역사공원 관련 법규를 파악하여 역사공원의 보존과 활용에 따른 6가지 정비 유형을 제시하였으며[3], 이후 서울시 암사 역사공원[4], 선농단 역사공원[5]에 대한 계획·설계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또한 동묘 역사공원의 원형경관을 고찰하여 복원 방향을 제시하고[6], 대구시 역사공원 7개소의 이용행태와 시민의식을 조사한 바 있으며[7], 서울시 역사공원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고, 각 역사공원과 인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공원길을 제안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2]. 본 연구는 [2]와 문제 인식을 같이 하지만, 고시된 자료를 이용하고 관련 법규와 분석 틀을 토대로 논리적 분석과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 역사공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 II.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대상

서울시에서 지정한 역사공원은 2016년 1월 현재 총 15개소로서 10개소는 조성되고 5개소는 조성되지 않았다. 서울시 역사공원은 2천㎡부터 10만㎡ 이상의 면적까지 다양하고, 보물, 사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역사문화자원을 가진 역사공원과 그렇지 않은 역사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1). 현재 조성된 역사공원 10개소 중에서 백제시대의 석촌동고분과 방이동고분 역사공원, 조선시대의 경희궁과 동묘 역사공원은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근린공원에서 커다란 물리적 변화 없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육신①, 봉은②, 선농단 역사공원③과 그렇지 않은 신계④, 양화진⑤, 이태원부군당⑥ 역사공원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묘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공지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뀌면서 일부 공간과 시설이 추가되거나 현상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의 공원으로 바뀐 사례이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분석 기준과 항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분석 기준으로서 [8][9][10]에서 정리한 역사문화경관의 가치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역사

공원에 요구되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8]은 역사문화경관이 가지는 성격을 심미성, 희소성, 역사적 의미, 교육적 가치,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라고 하였으며[10], [9]는 미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도시맥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또한 [10]은 역사공원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진정성을 역사적 가치 유형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성, 교육성, 사회성을 분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역사공원 분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역사성은 역사적 장소나 유적, 유물 등 역사문화자원을 다루는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한다. 둘째, 교육성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셋째, 사회성은 이용자가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하기 위한 역사공원의 기능이 적합한지 판단한다.

보편적인 공원 설계 과정은 개념 구상, 기능별 공간 배치 계획, 동선 계획, 시설물 계획, 식재 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으로 공원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는 주제공원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주제공원의 특성에 맞는 주제 설정, 주제가 연결되는 통일감과 연속성이 있는 공간 및 동선 계획, 주변 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동선 및 입구 계획, 그리고 시설물 계획이라는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서 역사공원의 주제를 결정하는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공간 기능 및 배치, 역사문화자원으로의 이용 동선 및 접근성,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라는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sup>1)</sup>. 다음으로 각 분석 대상별 분석 가능한 구체적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첫째, 역사문화자원의 유형에서 역사공원별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정보를 파악하여 그 특성

Table 1. The Current Status and Research Destination of Historical Park in Seoul (①~⑥)

No.	Park Name	Area(㎡)	Designated Year	Construction Status	Type of Cultural Heritage	Before Change
1	Amsa historical park	110,133	2006	×	Historical Site No. 267	
2	Achasan historical park	37,444	2008	×	Historical Site No. 234	
3	Gyeonghuigung historical park	100,030	2009	○	Historical Site No. 271 etc.	
4	Dongmyo historical park	8,450	2009	○	Treasure No. 142	
5	Tombs in Seokchon-dong historical park	45,137	2009	○	Historical Site No. 243	
6	Tombs in Bangi-dong historical park	30,293	2009	○	Historical Site No. 270	
7	Sayuksin historical park ①	47,832	2009	○	Seou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8	cemetery park
8	Bongun historical park ②	75,405	2009	○	Seou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64 etc.	neighborhood park
9	Shingye historical park ④	15,000	2009	○	-	neighborhood park
10	Yanghwajin historical park ⑤	4,804	2009	○	-	public open space
11	Chanwoomgil historical park	6,923	2009	×	-	
12	Sangsan historical park	2,962	2010	×	-	
13	Seonongdan historical park ③	3,933	2012	○	Historical Site No. 436	children's park
14	Itaewon-Bugundang historical park ⑥	2,020	2013	○	-	-
15	Seosomun historical park	23,310	2013	×	-	

\* The target for study was separated by shading the six historical parks in Seoul.

을 도출하고, 둘째, 도입 공간의 기능 및 배치에서는 역사공원의 핵심이 되는 역사문화자원 공간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양시설 공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되지 않는 기능의 근린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이용 동선과 접근성에서 출입구의 위치와 폭, 이용 동선을 방문 목적에 따라서 역사문화자원 관람 동선과 기타 근린시설 공간을 이용하는 산책 동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과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한 역사관련 시설로 구분하여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로서 역사공원 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문화재 정보[12]'와 '서울시 공원 현황(2015)[13]'을 고찰하였으며, 역사공원 조성계획 심의 관련 자료[14]와 서울특별시에서 고시한 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15][16]을 포함하는 6개 역사공원별 공원조성계획도 및 현황 도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수행하여 주요 공간과 시설의 위치를 도면의 정보와 비교 검토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용 동선을 파악하였다.

연구는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과정과 내용을 Figure 1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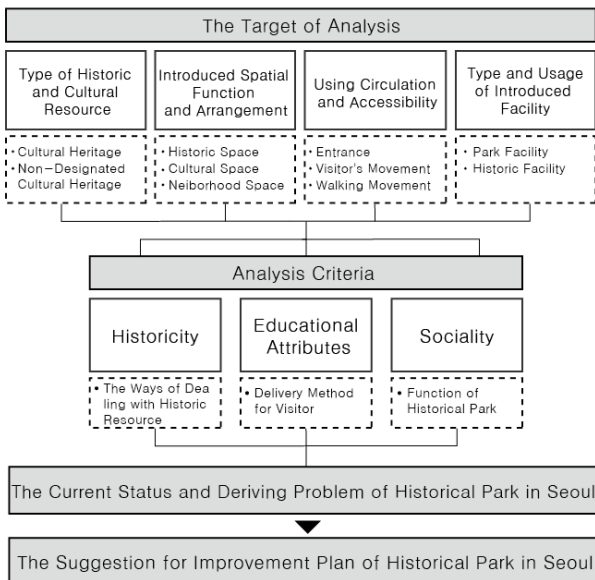


Figure 1. The Contents of Research

### III. 결과 및 고찰

#### 1. 서울시 역사공원의 현황 고찰

##### 1)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역사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서 역사문화자원의 유형을 고찰한 결과, 연구 대상의 서울시 역사공원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문화자원을 가진 공원을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으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공원을 '비지정문화재<sup>2)</sup> 중심 역사공원'이라고 구분하였다.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 중에서 사육신 역사공원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육신 묘, 봉은 역사공원은 보물로 지정된 불상 3점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선불당 외 18점을 포함한 사찰이다. 선농단 역사공원에는 사적인 선농단(先農壇)과 천연기념물인 선농단 향나무가 있다. 이렇게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의 역사문화자원은 묘, 사찰, 제단 등 보존해야 할 물리적 대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상 선농단 역사공원은 부지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변 100m 영역까지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다음으로 시도지정문화재인 사육신 묘의 경우 묘역에만 현상변경이 제한되며, 봉은 역사공원은 테니스장이 있는 공원 영역을 제외한 부지 전체가 현상변경 제한 구역이다. 따라서 이들 역사공원은 '조성'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리'가 중심이 된다는 특성이 있다.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인 신계 역사공원의 역사문화자원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천주교 신자 10인의 순교와 관련된 당고개 순교성지이며, 공원 중앙에 당고개 순교성지 기념관이 설치되었다. 양화진 역사공원에는 조선시대 한강변에 설치된 주요 나루 중 하나로서 해상교통과 도성 방어의 중심지였던 양화진에 세워졌던 군사진지의 터가 복원되었다. 하지만 낮은 돌담을 두른 군사진지의 표현 방식이 역사적 진정성을 전달하기에 미흡하다. 신계 역사공원과 양화진 역사공원처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때 해당 역사문화자원을 적절하게 기념하고 상징하는 활용 방식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의 역사문화자원은 조선시대 지방 관아 인근에 설치되었던 마을 제당인 부군당으로서 담장 내부에 건물이 있다. 또한 해당 역사문화자원과 이에 해당되는 역사공원의 명칭을 살펴보면(Figure 2), 신계 역사공원이 '당고개 순교성지'와 관련 없이 행정구역인 '신계'를 붙임으로써 역사공원의 정체성을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Cultural Heritage Oriented Park			
	a: Tomb of Sayuksin-①	b: Seonbuldang-②	c: Seonnongdan-③
No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iented Park			
	d: Danggogae Martyrs Shrine-④	e: Site of Yanghwajin-⑤	f: Itaewon Bugundang-⑥

Figure 2.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of Research Destination

## 2) 도입 공간의 기능 및 배치

서울시 역사공원에 도입된 공간의 기능은 역사문화자원공간, 문화관이나 기념관으로 대표되는 교양시설공간, 관리사무소를 포함하는 관리시설공간, 주차장·화장실 등의 편의공간,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과 같이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3)</sup>. 대상지별 공원조성계획도와 현황도를 참고하여 현장조사 후 해당되는 공간의 기능별 분포도를 Figure 3에 정리하였다. 이때 녹지공간은 범례에 표현하지 않았다.

첫 번째, 사육신 역사공원은 1963년 묘지공원으로 지정되고 1978년 개원하였으며, 2006년 부지의 1/3을 차지하고 있던 폐쇄된 노량진배수지 부지에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숲과 산책로를 조성하였다[2].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처형된 사육신묘와 의절사 영역에 해당되는 역사문화자원공간이 전체 부지의 약 13%에 해당되며, 교양시설공간인 사육신 역사관이 배치되었다. 그밖에 근린공원 기능을 담당하는 체력단련 시설이 배치된 운동공간, 잔디마당, 전망데크, 야생화정원 등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조선시대 왕실의 원찰이자 불교 중흥의 중심 사찰로 대두되었던 봉은사(奉恩寺)가 중심이 된 봉은 역사공원은 1971년 공원으로 결정된 후 1988년 개장되었다. 사유지 87.6%는 문화재가 밀집한 사찰권역이며, 구유지 12.4%에 문화회관, 테니스장, 주차장, 가로공원이 조성되었다[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권역의 테니스장은 회원제로 운영되어 공간의 사유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근린공원이었을 때 34.15%였던 시설율<sup>4)</sup>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후 미륵불보안지, 지장전 등 건물 신축(8,395,76㎡)으로 인하여 44.65%로 증가하였다[15].

세 번째, 선농단은 조선시대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 장소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에 청량대공원이 조성되고 1930년대 경성여자사범학교, 1950~60년대 서울사대부속중학교, 1970년대 서울사범대학교가 이전해오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1970년대 서울사범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이

일대를 매입하였으며, 1973년 선농단이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고, 1976년 일부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다[17]. 이후 2012년에 선농단 역사공원으로 지정되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설계안으로 리모델링되었다<sup>5)</sup>. 선농단 역사공원의 역사문화자원공간으로서 선농단은 2001년 사적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설정되었으며(420㎡), 197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향나무(문화재보호구역 380㎡)와 함께 부지의 약 43%를 차지한다. 지상부에 장의사가 설치된 휴게공간이 배치되고, 지하부에 교양시설공간으로서 선농단 역사문화관과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공간이 마련되었다.

네 번째, 신계 역사공원은 1940년 총독부 고시(제208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당고개 순교성지 기념관 규모를 3배 이상 확장하여(391.5㎡→1,417.2㎡) 시설율이 38.10%에서 42.32%로 약 4% 증가하였다[1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종교적 기능이 강한 건축물의 증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공간 배치를 살펴보면, 당고개 순교성지와 성당 기능을 부가한 기념관으로 이루어진 역사문화자원공간이 약 12%, 그리고 교양시설공간, 분수광장 주변의 휴게공간, 야외음악당, 운동공간으로 이루어진 근린시설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밖에 주차장과 화장실, 관리사무소가 있는 편의공간 및 관리시설공간이 배치되었다.

다섯 번째, 양화진 역사공원은 2007년에 쓰레기가 버려지던 공터에서 공원으로 바뀌었다. 인접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절두산 순교성지 사이에 위치함으로서 이들과 한데 묶어서 순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2]. 하지만, 이것은 역사공원 내 실제 역사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군사진지 양화진터의 시간성 및 역사성과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양화진 역사공원이 두 개의 부지로 나뉜 것은 사유지 보상 문제로 인하여 국유지 621㎡, 사유지 516㎡, 구유지 3,676㎡에 해당하는 공공공지만 공원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14]. 커다란 부지에는 중심에 자리 잡은 양화진터가 역

사문화자원공간으로서 부지의 약 7%를 차지하며, 그밖에 막구 조형 파고라가 설치된 휴게공간과 운동공간이 있다. 작은 부지에는 야외음악당과 휴게공간이 배치되었다. 관리시설공간은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이태원부근당은 조선시대 상업 중심지로 발달했던 한강변에 산재한 부근당 중 하나로서 높은 언덕에 입지하여 좋은 조망점을 가지고 있다. 부지의 13%를 차지하는 역사문화 자원공간으로서 담장 내부에 이태원 부근당이 입지하고, 관리 사무소와 화장실이 있는 편익공간 및 관리시설공간, 장의자 휴게공간 2개소로 구성된다.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2015년에 유관순열사 추모비가 놓인 교양시설공간이 추가되었다.

서울시 역사공원별 도입 공간의 비율을 살펴보면(Table 2), 부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선농단 역사공원과 이태원부근당 역사공원에만 운동공간이 없었다. 또한 양화진 역사공원은 인접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부지 내에 편익공간과 관리시설공간이 배치되지 않았다. 역사공간의 중심 기능을 하는 역사문화자원공간은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 중에서 부지 면적이 넓은 사육신 역사공원을 제외한 두 역사공원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비지정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13% 이하였다. 또한 봉은 역사공원의 녹지율은 36%로서 근린공원의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able 2. Introduced Space Ratio of Historical Park in Seoul

Division	No.	Historic Space	Cultural Space	Managing Space	Sports Space	Resting Space	Convenience Space	Green Space
Cultural Heritage Oriented Park	①	13%	2%	1%	1%	7%	3%	73%
	②	41%	5%	1%	4%	2%	11%	36%
	③	43%	Basement	Basement	-	1%	Basement	56%
No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iented Park	④	12%	2%	2%	1%	15%	4%	64%
	⑤	7%	6%	-	1%	17%	-	69%
	⑥	13%	1%	9%	-	6%	1%	70%

\* For analysis, calculated the area by autocad and then rounded a few first digit.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actual facility rate and the ratio of gree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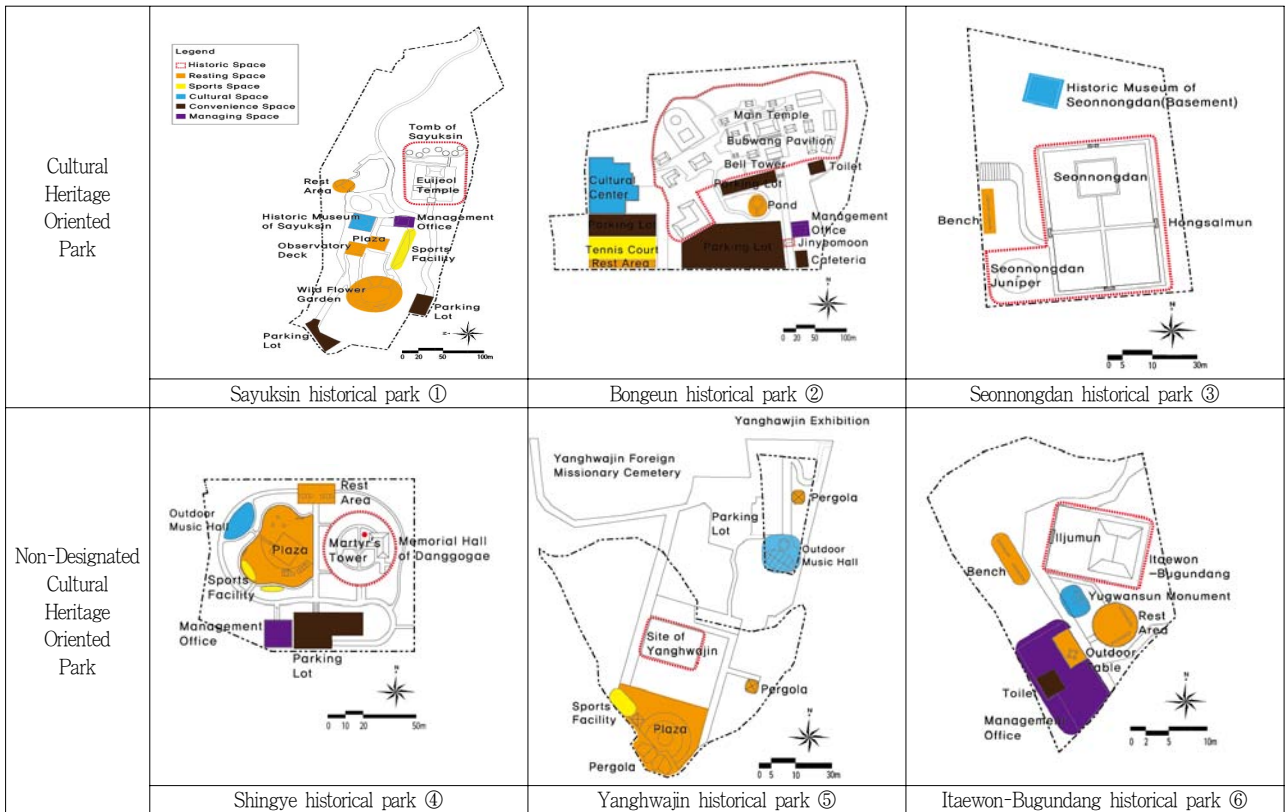


Figure 3.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troduced Space of Historical Park in Seoul

### 3) 이용 동선 및 접근성

서울시 역사공원의 이용 동선과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공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역사문화자원공간, 해당 역사문화자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념관이나 문화관이 있는 교양시설공간, 나머지 기능은 근린시설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공간에 접근하는 동선을 '관람동선', 교양시설공간과 근린시설공간으로 접근하는 동선을 '산책동선'으로 정의하였다. 대상지별 공원 현황도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수단, 주차장 위치, 출입구 위치, 이용 동선 현황을 파악하였다(Table 3, Figure 4).

사육신 역사공원은 도보 5분 거리 내에 사육신공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노들역과 노량진역이 있어서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한 공원 남쪽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남쪽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주출입구로부터 불이문을 통과하여 의절사를 거쳐 사육신 묘역까지 진입하는 막다른 길(cul-de-sac) 형태로 6m 폭원의 관람동선이 확보되었다. 나머지 2개소의 출입구를 잇는 4m 폭원의 산책동선은 사육신 역사관과 운동공간, 휴게공간을 복잡하게 연결하고 있다. 봉은역사공원은 지하철 삼성중앙역과 봉은사역이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으며, 사찰 영역과 근린시설공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각각 확보되었다. 따라서 진여문(사천왕문)을 통과하여 법왕루를 거쳐 대웅전까지 진입하는 폭원 12m의 관람동선과 테니스장, 문화회관, 주차장으로 접근하는 폭원 12m의 산책동선이 명확하게 분리되었다. 선농단 역사공원의 경우 도보로 5분 내에 안암 오거리·제기동 성당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제기동역이 있으며, 지상부와 지하부 공간의 기능이 구분됨으로써 이용 동선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지상부 서측에 폭원 5m의 출입구와 관람동선이 있으며, 동, 서, 남쪽 홍살문을 통해서 선농단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지하부로 향하는 입구가 북측에 있으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신계 역사공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용산 전자상가·용산 e-편한세상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공원 부지 남쪽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3개소의 출입구 중에서 주 출입구는 남쪽에서 진입하는 동선이다. 주차장과 동쪽 출입구에서 연결되는 관람동선과 북쪽 출입구에서 연결되는 관람동선이 당고개 순교성지로 연결된다. 주차장과 북쪽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폭원 5m의 직선 산책동선이 확보되었고, 서쪽 근린시설공간과 당고개순교성지 우측을 연결하는 폭원 2m의 곡선형 산책동선이 배치되었다. 두 가지 이용 목적에 따른 동선 분리가 고려되지 않았지만, 개방성이 높아서 당고개 순교성지는 쉽게 인지된다. 양화진 역사공원은 지하철 합정역과 양화진 성지공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도보 5분 내에 접근할 수 있다. 공원 북쪽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묘원과 주차장에서 접근 가능한 주 출입구가 하나씩 확보되었다. 근린시설공간 옆에 남쪽 출입구가 있으며, 분리된 야외음악당으로 가는

출입구 2개소가 있다. 양화진 역사공원은 많은 출입구가 있어서 접근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개방된 형태의 양화진터로 향하는 관람동선도 특별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공원 내 동선의 폭원은 4m로 동일하였다.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은 지하철 녹사평역과 이태원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연구 대상지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낮았다. 공원 북쪽에 1개소, 남쪽에 2개소의 출입구가 있지만 북쪽 출입구는 폐쇄되었으며, 현재 담장에 부착된 일주문이 닫혀있어서 부군당으로 진입할 수 없다. 부지의 면적이 좁아서 폭원 2m와 6m의 동선은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 역사공원의 접근성과 이용 동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접근성이 좋았으며, 사육신 역사공원, 봉은역사공원, 선농단 역사공원 등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 세 곳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도록 묘, 사찰, 제단까지 참배(參拜) 및 관람동선이 확보되었다. 이처럼 관람동선이 명료하게 인지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밖에 신계 역사공원의 관람동선과 산책동선의 혼재로 인하여 약화된 역사문화자원의 정면성과 방향성, 양화진 역사공원의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출입구,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 불량과 같은 문제들을 파악하였다.

### 4)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

#### (1)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6항에서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로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서울시의 공원 현황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 역사공원에 도입된 시설로서 역사관련시설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을 정리하였다(Table 4). 사육신 역사공원에는 파고라, 야외탁자, 장의자,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었고, 봉원역사공원에는 연못, 실개천, 장의자, 야외탁자, 테니스장, 주차장, 화장실, 자판기,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었다. 선농단 역사공원에는 장의자가 설치되고 지하에 주차장이 확보되었다. 신계역사공원에는 파고라, 분수, 조각, 장의자, 체력단련시설, 야외음악당, 순교현양탑,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다. 양화진 역사공원에는 파고라, 장의자, 체력단련시설, 야외음악당, 지하주차장이 있고,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에는 장의자, 부군당 비석, 유관순 열사 추모비,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장의자가 포함된 휴양시설과 화장실이 포함된 편익시설은 모든 역사공원에 도입되었다. 부지 면적이 좁은 선농단과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을 제외한 다른 역사공원

Table 3. An Analysis on the Using Circulation and Accessibility of Historical Park in Seoul

Division	No.	Entrance		Using Circulation		Accessibility		
		Main Entrance (a place)	Sub Entrance (a place)	The Width of Visitor's Movement (m)	The Width of Walking Movement (m)	Location of Parking Lot	Station Name	Bus Stop Name
Cultural Heritage Oriented Park	①	1	2	6	4	South Entrance	Nodeul Stn. Noryangjin Stn.	Sayuksin Park
	②	1	1	12	14	South Sub Entrance	Samseong Jungang Stn. Bongeunsa Stn.	
	③	1	1	5		Basement Garage	Jegi-dong Stn.	Anam-dong 5 Street, Jegi-dong Catholic Church
No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iented Park	④	1	2	5	2	South Entrance		Yongsan Electroshop, Yongsan e-Pyeonhansang Apt.
	⑤	4	2		4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Hapjeong Stn.	Yanghwajin Shrine
	⑥	1	2	6	2		Noksapyeong Stn., Itaewon S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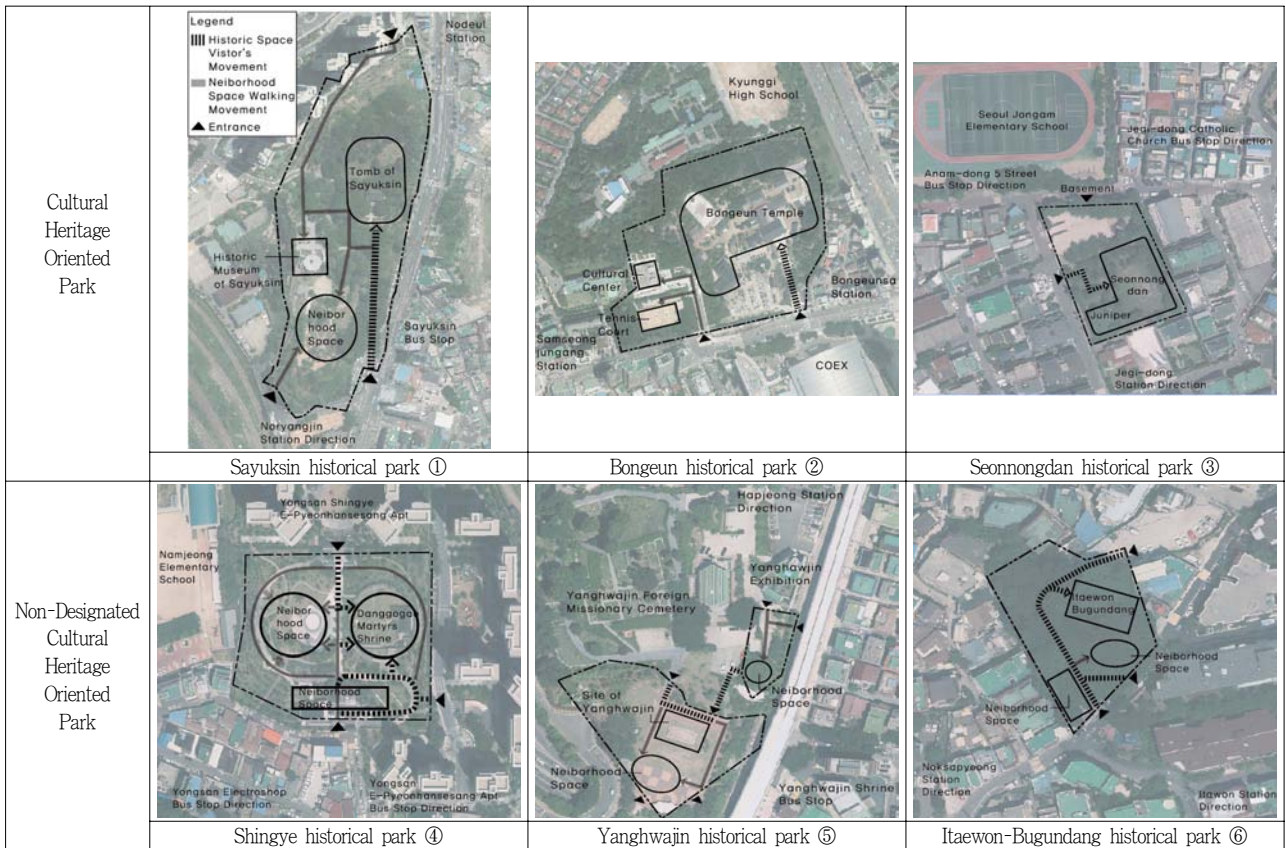


Figure 4. The Current Status of Entrances, Visitor's Movement and Walking Movement of Historical Park in Seoul

에는 조경시설로서 파고라와 수경시설이 설치되고, 체력단련 시설과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이 도입되었다. 교양시설로서 신계 역사공원과 양화진 역사공원에 야외음악당이 배치되었으며, 신계 역사공원에는 순교현양탑,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에는 부군당 비석 외에 유관순열사 추모비가 설치되었다. 유관순열사는

1920년 9월 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뒤 용산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는데, 일제 당국이 군용기지 조성 목적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실전(失傳)되었다. 용산구는 이태원 공동묘지가 지금의 한강진역 인근으로 이태원동·한남동 일대에 있었다고 추정하고, '용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한강과 미



Table 4. Introduced Facility of Historical Park in Seoul

No.	Landscape Facility	Resting Facility	Sports Facility	Cultural Facility	Convenience Facility
Sayuksin historical park ①	Pergola	Outdoor Table Bench	Sports Facility		Parking Lot Toilet Drinking Fountain Public Phone
Bongeon historical park ②	Pond Streamlet	Outdoor Table Bench	Tennis Court		Parking Lot Toilet Vending Machine Public Phone
Seonnongdan historical park ③		Bench			Basement Parking Lot
Shingye historical park ④	Pergola Fountain Sculpture	Bench	Sports Facility	Outdoor Music Hall Martyr's Tower	Parking Lot Toilet
Yanghwajin historical park ⑤	Pergola	Bench	Sports Facility	Outdoor Music Hall	Basement Parking Lot
Itaewon-Bugundang historical park ⑥		Bench		Memorial Stone Yugwansun Monument	Toilet

군기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에 유관순 열사 추모비를 건립하고 추모제를 추진하였다[18]. 하지만 이것은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의 정체성을 혼재(混在)시킨 결과가 되었다.

(2) 역사관련시설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역사관련시설은 첫째, 향교·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둘째, 자료관·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셋째,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넷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이다. 본 연구 대상의 서울시 역사공원과 관련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관련되며, 네 번째 전통사찰로서 봉은 역사공원이 해당된다. 역사성과 교육성이라는 분석 기준에 기념관과 체험관이 관련되므로 이들 시설이 역사공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도입되었는지 검토하였다(Table 5).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 중에서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역사공원에는 역사관련시설이 설치되었다. 사육신

역사공원에는 지상 2층 규모의 사육신 역사관이 있다. 1층은 구정홍보관, 영상관, 교육체험관, 사무실로 사용되고, 2층은 전시관이다. 하지만 교육체험관은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봉은 역사공원의 사찰권역에서 종루가 전통다도체험관으로 운영되지만, 공원권역에 입지한 지하 4층, 지상 3층의 규모의 봉은 문화회관은 지하주차장과 지상 1, 2층은 예식장, 3층은 법회 장소로 이용됨으로서 역사관련시설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 선농단 역사공원의 지하에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입지하는데, 지하 1층이 전시관, 카페, 사무실로 운영되고, 지하 2층은 전시관, 체험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공원의 지하부에 주민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역사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 신계 역사공원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당고개 순교성지 기념관이 있는데, 1층은 성당, 안내소,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2층은 당고개 순교성지와 성물방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성당 관련한 시설이 대부분의 면적(연면적 1252.61㎡ 중 1170.24㎡)을 차지한다[19]. 양화진 역사공원에서 작은 부지의 북쪽 경계부에 지상 5층 건물인 양화진 홍보관이 접해있다. 실제 홍보관은 2층에만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사용한다[6].

Table 5. The Usage of Introduced Historic Facility of Historical Park in Seoul

No.	Building Name	Position	Floor Usage	Inappropriate Usage
Sayuksin historical park ①	Historic Museum of Sayuksin	Inside : separation	1F - theater, experience center 2F - exhibition	library
Bongeon historical park ②	Bongeon Cultural Center	Inside : park area	1·2F - wedding hall 3F - buddhist area	wedding hall
	Bell Tower	Inside : temple area	1F - teism center	
Seonnongdan historical park ③	Historic Museum of Seonnongdan	basement	B1F - exhibition, cafe B2F - exhibition, experience center	cafe
Shingye historical park ④	Memorial Hall of Danggogae	Inside : combination	1F - catholic church, exhibition, information 2F - holy things store	catholic church
Yanghwajin historical park ⑤	Yanghwajin Exhibition	outsid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2F - exhibition 1,3,4,5F - church	church

종교 시설로서 성당과 교회는 역사관련시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 2. 서울시 역사공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 역사성 관련

첫째, 서울시 역사공원은 사육신·봉은·선농단 역사공원과 같은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과 신계·양화진·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과 같은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공원의 목적이 되는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재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즉,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되므로 역사문화자원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가 중심이 되고,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을 적절하게 기념하고 상징하는 활용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역사공원별 역사적 정체성을 명료하게 유지하고 전달하는 것이 역사공원의 중심 기능이다. 양화진 역사공원과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은 역사공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혼재되었으므로 공원의 역사성에 대한 태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역사문화자원공간의 규모는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들이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들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교양시설공간, 관리시설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편의공간, 녹지로 구성되어 역사공원의 공간 구성이 근린공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공원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역사문화자원공간에 대한 이용의 편의와 접근성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넷째, 봉은 역사공원과 신계 역사공원에서 종교시설의 신·증축으로 인하여 근린공원이었을 때보다 시설물이 높아진 것은 자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자율성에서 비롯되었다. 역사공원의 시설 결정 심의 시 역사공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제어가 필요하다.

### 2) 교육성 관련

첫째, 연구 대상지는 아니지만, 동묘 역사공원 역시 '동관왕묘'라는 역사문화자원보다 인근 지하철역명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해당 역사문화자원과 관련시켜서 역사공원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신계 역사공원은 '당고개순교성지 역사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둘째, 서울시 역사공원에서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출입구, 관람동선과 산책동선의 혼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 불량 등의 문제를 인지하였다. 따라서 역사공원 이용자가 역사문

화자원공간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람동선을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출입구를 줄여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체험을 유도하고, 역사공원의 목적이 되는 역사문화자원공간을 개방하여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3) 사회성 관련

첫째, 「조경설계기준」 제3장 3절 1항에서 역사공원은 '역사적 공간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한 지역에 모아 배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근린공원에서 변경된 역사공원의 경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역사공원의 기능과 관련 없는 운동시설이나 야외음악당과 같이 규모가 큰 교양시설의 경우 역사공원의 목적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시설의 용도와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봉은 역사공원의 테니스장이 회원제로 운영되어 소수 회원들에 의한 집단적 사유화라는 문제가 야기되므로 역사공원의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둘째,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4장 2절 1항에서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 중에서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하였지만, 여기서 배제된 야영장, 아우회장이나 교양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역시 역사공원 내에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역사공원 관련 법규의 세부 규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셋째, 역사공원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역사관, 문화관, 기념관, 홍보관이라고 명명된 역사관련시설 중 일부 공간이 주민 편의시설과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 역사관련시설의 용도가 역사공원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공원의 가치를 대표하는 역사성, 교육성, 사회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도출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공간 기능 및 배치, 이용 동선 및 접근성, 도입 시설의 유형과 용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서울시 역사공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문화자원의 문화재 유형에 따라서 역사공원을 구분하였는데, 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 중심, 비지정문화재 중심 역사공원은 역사문화자원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에 따라서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결정되므로 가급적 역사적 층위가 혼재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역사공원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원의 명칭을 역사문화자원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체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람동선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근린시설공간과 적절하게 분리해야 한다. 넷째, 부적합 시설 도입, 시설을 증대, 접근성 불량, 집단적 공간 사유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므로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관람·안내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 변경이나 운영 방식에 대하여 관리 감독해야 한다. 다섯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양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공원 지정부터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조경설계기준」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사공원 관련 법규를 고찰하고, 서울시 역사공원 6개소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공원의 모습은 고정될 수 없으며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여건에 따라 변화의 사유가 발생한다. 결정권자는 그것이 역사성, 교육성, 사회성이라는 역사공원의 가치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배제된 이용자 인식 조사와 이용행태 분석, 그리고 직접적으로 역사공원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도입 시설의 디자인에 대한 적정성 등 심미성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 주 1) 연구 대상지의 식재 현황을 고찰한 결과, 역사공원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타 항목에 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분석 항목에서 배제하였다.
- 주 2)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 주 3) [20]에서 제시한 5개 공간 유형에 역사공원의 주제를 결정하는 역사문화자원공간과 정보를 기념하거나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교양시설공간을 추가하였다.
- 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린공원 시설율은 40% 이하이다.
- 주 5) 서울화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선농단 구조물의 위치는 일제강점기 이후 최소 3회 이상 변경되었다[17].
- 주 6) 마포구청 관계자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이하 백주년교회)관계자 이십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화진 홍보관 건립을 위한 마포구청과 백주년교회간 협약식이 체결되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마포구 소유의 땅위에 백주년 교회가 홍보관을 건립, 마포구에 기부 체납하게 된 것"이며 "홍보관 건물 중 1층만 마포구가 홍보관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마포구는 양화진성지화 사업 중 하나인 홍보관 건립을 위한 첫 단추를 무사히 꿰게 되었다[21].

## REFERENCES

- [1] The Current Status of City Park · Green Area · Pleasure Ground, Statistics Korea E-Index.
- [2] Kim, W. J.(2015). Bringing Colour to History: Revitalization of Historical Park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 [3] Ahn, G. B.(2001).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Historic Park and its Types.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9(2): 1-14.
- [4] Jang, J. S. and Kim, C. S.(2006). Amsa Ecological History Park Master Plan.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4(1): 85-94.
- [5] Han, M. O.(2009). Planning & Design Proposal of 'Sunnongdan Historical Park'.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6] Kim, H. S., Jung, W. J. and Sim, W. K.(2013). Studies on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Prototype Landscape of Donggwanwangmyo Shrine in Seoul.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4): 33-50.
- [7] Son, J. H.(2013). Daegu Historical Park Use Pattern and Citizenship.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8] Wayne, O. A.(1979). Historic Preservation. in A. J. Catanese & J. C. Snyder, An Introduction Urban Plann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9] Donovan, D. R.(2008). The Economics of Historic Preservation: A Community Leader's Guide. Seoul: Munundang.
- [10] Kim, S. I.(2010). Research on the Value of the "Incheon Freedom Park" as a Historical Park and the Direction of its Improvement.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11] Cho, H. K.(1998). A Study on Historic Preservation of Old Buildings and Quarters in Terms Adaptive Reuse.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12]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13] <http://env.seoul.go.kr/archives/13606>
- [14] Mapo-Gu(2009). The Construction Plan about Deliberation of Yanghwajin historical park.
- [15] Seoul Notice No. 2015-308, The Construction Plan and Topographical Map of Bongeun historical park.
- [16] Seoul Notice No. 2010-107, The Construction Plan and Topographical Map of Shingye historical park.
- [17]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2011). A Study on the location and Form for Historical Research of Sunnongdan. University of Seoul.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Seoul, Korea.
- [1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510362373794>
- [19] <http://aos.catholic.or.kr/danggogaeholyplace>
- [20] Lee, M. W.(2011). Landscape Plan. Seoul: Kimoondang.
- [21] [http://www.maposhinmoon.com/bbs/board.php?bo\\_table=board4&wr\\_id=30&page=255](http://www.maposhinmoon.com/bbs/board.php?bo_table=board4&wr_id=30&page=255)

원 고 접 수 일: 2016년 2월 17일  
 심 사 일: 2016년 2월 29일 (1차)  
 : 2016년 3월 16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6년 3월 19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